

김나현 CAKE ON THE EDGE

저는 오브제가 지닌 형태와 기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의복으로 풀어내는 김나현입니다.

프로젝트 Objet에서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오브제를 의복으로 재해석하며,
의복 역시 기억을 담는 새로운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후 개인 브랜드 CAKE ON THE EDGE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지속하며, 일상 속
사물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here



Something Happened Here는 사물을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용의 흔적과 시간의 층은 누군가의 존재를 짐작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지나간 시간을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번 작업에서는 생산되었지만 사용되지 못한 빈폴의 데드스톡과 오랜 시간을 지나온 중고 의자를 하나의 오브제로 연결했다.

의자는 Cake on the Edge의 시선으로 다시 옷을 입고, 서로 다른 시간을 품은 두 대상은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버려진 것을 새롭게 사용하는 업사이클링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시간과 기억을 다른 형태로 해석하는 과정이며 Cake on the Edge가 던지는 'Something Happened Here'라는 질문을 또 다른 사물을 통해 확장한 하나의 장면이다.